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서

'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뿐인 노예에게 상속하되, 내 아들에게는 그 중에서 아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을 준다.'

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죽기 전에 써 놓은 유서 내용이다. 부자는 이 유서를 노예에게 주고 숨을 거두었다. 노에는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다.

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듣고 유학 길에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유서를 노예한테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.

'아니 이럴수가! 아버지는 어째서 재산을 몽땅 노예에게 주고 내게는 그 중 하나만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셨나?'

아들은 너무나 서운해 랍비에게 아버지의 유서를 보였다.

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 본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.

"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시네."

"뭐라고요? 재산을 노예한테만 다 주신 아버지가 현명하시다니요"

"그렇다네, 그 노예는 누구의 재산인가? 자네는 그 노예 한 가지만 가지면 결국 아버지의 유산은 전부 자네가 상속받는 것이 되네. 만일에 아버지께서 유서를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노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조차 자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네의 집까지 다 팔아 가지고 도망 갈 수도 있으니까 ㅇ렇게 유서를 쓰신 거라네. 자네는 어서 가 저 혼자서 기뻐하고 있는 노예를 갖게나."

아들은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와 재치에 감탄하고 감사하며 랍비와 함께 집에 돌아가 자기는 노예를 갖겠다고 선언하였다. 랍비가 그 증인 되었으니 노예의 기쁨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.